

남원 유곡 · 두락리 고분군 국가 문화재로 지정될까?

백제 · 가야 유물들 발견 문화재청, 현지조사 나서 시, 유적 활용방안 계획 마련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서 지난 29일, 30일 두 번에 걸쳐 현재 전북도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된 남원 유곡 및 두락리 고분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김중진 문화재청장이 유적 답사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유적의 조사, 정비 방안과 국가문화재 지정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날 현지조사에는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의 높은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발굴조사,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7년에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조사,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남원시 아영면과 인월면 경계에 위치한 고분군은 지리산의 한줄기인 연비산(842m)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완만한 구릉의 능선을 따라 40기의 봉토분이 분포하고 있다.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은 198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발굴조사를 한 결과, 67기의 봉토분에서 수혈식 석곽묘(구덩식 덧널무덤)와 횡혈식 석실묘(굴식 돌방무덤)이 확인되었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서 지난 29일, 30일 두 번에 걸쳐 현재 전북도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된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으며, 이중 32호분은 직경 21m 크기의 타원형 봉토가 온전히 남아 있으며, 2014년 원형복구를 완료했다.

고분군은 삼국 시대 무덤 축조기술을 알 수 있어 그 가치가 높으며,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계획된 축조공정(정지~봉분쌓기), ▲토제를 쌓고 구획석 설치 후 성토, ▲봉분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 서로 다른 토성의 흙을 관측기법으로 교대로 쌓는 기술력이 동원, ▲채토 및 배수를 위한 주구의 시설, ▲서곽 축조 시 목주(木柱) 이용 등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통형기대(원통모양 그릇받침)를 비롯한 각종 토기류, 환두대도·철

모·철촉 등의 무기류, 살포·철검·철부 등의 농공구, 운주·혁금구 등의 마구류, 갑주류 편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32호분에서는 백제왕릉급에서만 부장되는 청동거울(의자손수대경)과 배계계 동등신발편이 출토되었다.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출토유물도 재지세력·대가야·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6세기 남원 문명고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의 고대사와 고대 문화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4일 전주대 음악학과 '잡 콘서트'

전주대학교 음악학과는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전주대 예술관 리사이틀홀에서 '2017 잡콘서트(Job Concert)'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 산하협력선도대학 LINC+ 사업의 일환으로, 4개의 카테고리(음악창업·음악취업·사회적기업·청춘심리학)에 6명의 저명 강사를 초빙해 특별강연과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음악창업 카테고리에는 성인전문피아노학원 위드피아노의 김성식 대표와 전통예술기획사 모던韓의 조인선 대표가, 음악취업 카테고리에는 'SM엔터테인먼트'의 차민주 씨와 월간객석의 송현민 기자가 강의를 나선다.

또한 사회적기업 카테고리에는 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의 이병욱 전문위원이, 청춘심리학 카테고리엔 심리학 박사 하유진이 강사로 나서 조언을 들려줄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지붕 임산본 대상 전국정가경창대회, 내일 전주시청서

(사)정가보존회(집행위원장 임환)는 12월 2일 오전 11시부터 전주시청 강당에서 개최식을 갖고 지붕 임산본 대상 제10회 전국정가경창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전북 최초로 시조창(왕제)부문 도지정무형문화재 제14-1호로 지정(1996년 3월 29일)된 임산본 명인의 업적을 보존 및 계승하고 유능한 신인 발굴과 정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국 규모의 행사로 확대돼 열린다.

대회는 대상부(왕제사설·온짐음·우시조·우조지름·워음지름 5곡), 국창부(중허리·각시조·우조지름·워음지름 3곡), 특부(남·여지름시조 2곡), 갑부(사설시조 1곡), 을부(평시조 1곡) 부문에 전국지역의 시조인들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정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시상부문은 대상부 장원 1명(전라북도지사 상·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명(전주시장 상·각 100만원), 우수상 3명(이사장 상·각 20



만원) 등이다. 임산본 이사장은 "시조는 자고로 음악적 예술성과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옛것이라는 자부심을 자랑하는 장르다"면서 "떨어질 듯 이어지는 성음이 반복되는 노래가 계속되는 장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느림의 미학으로 대표된다"고 말했다. 임환 집행위원장은 "정가는 우리전통을 지켜 나가는 줄기"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회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Jeonju Intl. Film Festival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 내년도 영화제 상영 한국영화 출품작 공모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북지역 영화 접수도 동시 진행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충직)가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상영할 한국영화 출품작을 공모한다.

공모는 한국경쟁·한국단편경쟁으로 이뤄진 경쟁부문, 코리아시네마스케이프 등의 비경쟁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출품작은 작품 길이 40분 이상을 장편·40분 미만을 단편으로 분류하며, 극영화·다큐멘터리·실험영화·애니메이션 등 장르와 형식에 제한은 없다. 출품작 접수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같은 기간,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제작된 지역영화에 대한 공모도 동시에 진행한다. 지역공모 자격은 전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의 작품이나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둔 대학의 재학생 작품 또는 전북지역에서 50% 이

상 로케이션한 작품을 한한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경쟁과 비경쟁 전 부문에 걸쳐 상영된다.

출품 자격은 2018년 5월 개최되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이전에 국내에서 상영되지 않은 작품을 대상으로 제한한다. 출품 방법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jiff.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 팀(02-2285-0662 또는 koreanfilm@jiff.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본선 작은 내부심의 및 예심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2018년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

호랑이 그림으로 행복 바이러스 전하다

모용수 작가 개인전

호랑이를 의인화한 작품으로 사랑을 전하는 모용수 작가.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남녀 한 쌍은 포옹을 때론 산책을 하기도 한다. 또 숲 속에서 서로를 부르다가 하면 길에서 반갑게 달려오는 모습에선 순박한 순정이 읽혀진다. 흐릿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작품은 흡사 동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만든다.

모용수 작가가 2일부터 31일까지 일광대학교 병원 내 일광갤러리에서 '행복 바이러스 전하는 호랑이 그림' 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선 민화를 재해석한 '사랑합니다' 연작 시리즈를 선보인다. 그림에는 호랑이 때인 아내를 사랑하는 애뜻한 마음과 감사함, 미안함이 담겨 있다. 의인화된 호랑이는 작가 자신인 동시에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으



로 투영하게끔 만들며, 이를 통해 인생의 희로애라의 해학적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작품에 사용된 색은 원색에 가까우면서도 부드럽게 보인다. 이는 질감의 효과에 따른 것. 다양한 석채나 지수정 등을 이용해 만든 질감으로 인해 강한 색감은 그대로 보여줌과 동시에 속 깊은 화면을 연출해 보일 수 있었다.

모용수 작가는 일광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마흔여덟 번째 개인전이다. 수상경력으로 제19회 MANIF 우수작가상, 제27회 구상전 대상, 제26회 전북미술대전 대상, 제3회 대전MBC 금강미술대전 우수상, 제11회 신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이 있으며, 현재 일광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해은 기자

군산대 미술관 기획전시 '삶과 예술의 향연' 3일까지 이당미술관서

군산대학교 미술관은 지난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군산 이당미술관에서 미술관 기획초대 '삶과 예술의 향연'을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군산대학교 미술관이 개교 70주년을 맞아 평생교육원 전담교수들의 대표작들을 한 공간에 모아 기획한 것이다. 사진, 프랑스자수, 서예, 도예, 서양화, 한지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아우러져 독특한 시

너지효과를 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김수나 전담교수의 수묵담채화 '꽃-시간 속으로', 송월당 교수의 서화 '달마도', 이경욱 전담교수의 서양화 '이야기', 이상준 전담교수의 사진 '동국사의 겨울', 이은희 전담교수의 한지공예작 '예단함', 정원희 전담교수의 조형작품 '희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군산=김관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